

# 지구촌 양계뉴스

## WHO

### 보도매체에 AI 공포확산 금지 강조

WHO는 지역 및 국제 보도 매체에 AI에 대한 보도를 확대하되, 질병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보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WHO 지역 보도매체 자문관 Ibrahim el-Kerdany는 “세계인들에게 질병에 대해 잘 알리기 위해 보도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것이며, 공포 확산을 위함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로이터

## UN

### 불법무역 통한 AI 확산 여부 조사

UN은 지난해보다 올해 AI가 상대적으로 뜸해진 상황에서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AI가 발생한 것이 가금류 불법 교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라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이 지난 2월 14일 보도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기구(FAO) 관계자는 “AI가 창궐했던 지난해와 올해는 패턴이 다르다”면서 감시 시스템 등을 강화한 관계로 철새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에서 불법 교역 쪽에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 환경부 대변인은 올해 유럽에서 AI가 발생한 곳이 헝가리와 영국 동부의 서퍽주(州) 두 곳 뿐임을 상기시키면서 영국 가금류 가공회사 버나드 매튜스가 두 곳에 공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헝가리에서 사육된 칠면조가 가공육 형태로 서퍽주에 주기적으로 수송돼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AI가 생고기 상태에서 생존한다면서 따라서 이 회사가 AI를 옮긴 것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인도네시아와 나이지리아 및 이집트에서 발생한 AI도 이런 식의 불법 교역을 통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집트와 나이지리아의 경우 AI가 달걀과 닭고기 수송을 통해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 서울=연합뉴스

## 미국

### 농무부 육류공장 감시 강화

미 농무부가 육류가공 공장에 대한 감독을 강



화하는 계획을 마련했으나 업계는 물론 의회와 소비자 단체들도 반발해 귀추가 주목된다.

농무부의 리처드 레이먼드 식품안전담당 차관은 지난 2월 22일 식품안전 지침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육류가공 공장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4월부터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농무부가 미국내 5천300여개소 육류가공 공장들을 일일 베이스로 감독해왔음을 상기시키면서 이 가운데 254개소가 우선적으로 특별감독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공장들도 계속 일일 베이스 감독을 받는다고 그는 덧붙였다.

레이먼드 차관은 첫 대상에 적용한 후 연말까지 20% 이상으로 확대하며 내년말까지 미국내 모든 육류가공 공장으로 확대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무부 계획에 대해 타이슨, 카길 및 스미스 필드 푸드 등 업계측은 “감독 강화가 성급하게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육류와 가공류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특별 감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지에 대해서도 농무부가 충분히 사전고지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하원 농업소위를 이끌고 있는 로자 들로로 하원의원(민주: 코네티컷주)도 “외부 컨설팅없이 농무부가 독자적으로 강화안을 마련한 것이 실수”라면서 “공공 건강에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 만큼 치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단체 쪽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다.

미소비자연맹(CFA) 대변인은 “농무부가 충분한 자료와 견해를 수집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조치를 취했다”면서 따라서 기대하는 실질적 효과가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에서는 E-콜리 등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으로 매년 7만3천명 가량이 희생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의료 비용과 생산성 하락 등으로 연간 근 30억달러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농무부 분석이다.

- 워싱턴 블룸버그=연합뉴스

#### ◆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임상 허용

EU는 스위스 제약회사(Novartis)의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인체 임상시험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EU는 GlaxoSmithKline사의 Daronrix와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할 수 있는 약품으로 기대하고 있다.

- 로이터

## 브라질

### 남반구 첫 H5N1 방역체계 구축 전망

브라질이 남반구 국가로는 처음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H5N1 바이러스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월 27일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은 상파울루 주에 위치한 부탄탕 연구소

를 중심으로 AI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백신 대량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남반구 국가 가운데는 첫번째로 AI 예방을 위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탄탕 연구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백신 개발에는 미국의 국립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프랑스의 사노피 파스퇴르 의약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어 효과적인 백신 생산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부탄탕 연구소는 현재 연방 및 주정부의 지원 아래 7천만 헤알(약 3천400만달러)을 들여 6천㎡의 부지에 AI 백신 생산시설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닭고기 생산·수출국으로 닭 사육 규모가 39억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브라질은 AI가 발생할 경우 닭고기 수출가격 폭락 및 수출 감소, 자국 내 양계업계 연쇄도산, 대량 실업사태 발생 등 국가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AI 예방 대책을 서둘러 왔다. 브라질 정부는 상파울루, 리우 데 자네이루, 파라주 등 3곳에 설치된 국립연구소에 AI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연구소를 5개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보건, 환경, 농업, 국방, 과학기술 등 14개 정부 부처 실무자가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AI 예방 기구를 설치해 방역대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부 산하에 질병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보건관리전략정보센터'를 설치하고 24시

간 AI 감시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 상파울루=연합뉴스

#### ◆ 농축산물 수출 사상 첫 500억달러 돌파

브라질의 최근 1년간 농축산물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억달러를 돌파했다고 현지 언론이 지난 2월 13일 보도했다. 브라질 농축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간 곡물과 육류 등을 합친 농축산물 누적 수출액이 502억6천만달러에 달해 최초로 500억달러대를 넘어섰다.

브라질의 농축산물 수출품목 '빅3'는 역시 콩과 쇠고기, 닭고기 등 육류, 설탕 및 알코올인 것으로 나타났다. 콩이 92억달러로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으며, 육류가 87억달러, 설탕 및 알코올이 81억달러에 달했다. 특히 설탕 및 알코올의 경우 세계 시장의 수요 증가로 이전 기간에 비해 71%의 증가세를 보였다.

브라질의 농축산물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31%가 늘어난 68억달러를 기록했으나 수출액은 현저한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산물 수출강세는 브라질의 무역수지 흑자 기조 유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 들어 2월 중순 현재 브라질의 수출은 148억9천200만달러로 15.1% 늘었으나 수입은 미국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24.8%가 증가한 113억4천6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7.8%가 감소한 35억4천600만달러에 머물고 있다.

- 상파울루=연합뉴스

## 네덜란드

### AI 공포 이후 가금 야외방사 허용

네덜란드 농업부는 2월 초에 영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최대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조치한 가금 야외방사 금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19일부터 가금의 야외 방사를 허용하도록 농부들에게 공포했다.

또한 영국의 AI 발생은 헝가리내 감염 작업장과의 간접 접촉에 의해 발생했을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네덜란드는 프랑스를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 큰 가금 생산국이며 최대 수출국이다.

- 로이터

## 태국

### AI 치료제 독자 생산

태국은 기존 AI 치료제보다 가격이 절반이싼 AI 치료제를 2월 말부터 독자 생산할 계획이라고 태국 영자일간 네이션이 2월 24일 보도했다.

태국 정부산하 제약회사인 GPO의 몽콜 지원산티칸 국장은 전날 “GPO가 태국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 이달 말부터 새로 건설된 생산라인을 통해 AI 치료제인 오셀타미비르의 제너릭 약품(특히 보호를 받지 않는 약품) 20만정을 생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셀타미비르는 AI 바이러스 A와 B형 치료제로 쓰이는 항바이러스제다.

이 제품은 한 정에 70바트(약 1천890원)로 AI 치료제 특허권자인 스위스 로슈사의 제품 ‘타미플루’의 절반 가격에 판매될 예정이다.

GPO는 AI가 태국내에 확산될 것에 대비, 하루 40만정의 AI 치료제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으며 100만정을 생산할 수 있는 원료물질을 비축해둘 계획이다.

태국 정부는 작년 8월 자국의 과학자 두 명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오셀타미비르 생성에 성공했다며 AI 대규모 발병에 대비, GPO에 생산라인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태국 정부 측은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로슈사는 태국에 특허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국 내에서 독자적으로 AI 치료제를 생산, 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방콕=연합뉴스

## 쿠웨이트

### 고병원성 AI 발견

쿠웨이트 보건부는 지난 2월 25일 치명적인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감염사례 20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 AI 바이러스는 대부분 중동지역에서 많이 기르는 사냥용 매에서 발견됐으며, 닭과 칠면조 등에서도 발견했다고 보건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사람에게 전염된 사례는 아직 보고되

지 않았으며 비상 계획이 발효됐다고 보건부는 발표했다.

쿠웨이트에서는 2005년 플라밍고(홍학)에서 AI 바이러스(H5N1)가 발견된 것이 가장 최근의 사례다.

- 두바이=연합뉴스

## 라오스

### AI 첫 인체감염 확인

라오스에도 처음으로 AI 인체감염자가 발생했다.

세계보건기구와 라오스 보건부는 15세 소녀의 가검물을 조사한 결과 AI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현재 비엔티안 근교의 태국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 소녀는 지난 2월 10일 유행성 감기 증세를 보여 입원한 이후 AI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인체에 치명적인 H5A1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 YTN

## 영국

### AI 발생 이후 칠면조 가공장 작업 재개

영국 육류위생국은 지난 2월 12일 AI 발생 이후 작업이 중단되었던 동부 영국지역 칠면조 도축장의 작업을 재개하도록 재승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유럽 최대 칠면조육 생산회사인 Bernard Matthews는 2월 13일 작업을 재개했다.

이번 작업 재승인은 도축장과 연계된 작업실의 세척 및 소독이 공중위생 기준에 충족하여 이뤄졌다.

- 로이터

## 러시아

### 모스크바 근교서 AI 발생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근교에서 최근 AI가 발생해 가금류 수십마리가 폐사하고 주민 여러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관리들이 지난 2월 16일 밝혔다.

러시아 가축검역소 관계자는 “AI로 죽은 가금류들이 오딘초보와 도모데도보 등 모스크바와 가까운 지역에서 발견됐다”면서 “폐사한 가금류에는 암탉과 칠면조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젠나디 오니셴코 러시아 국가위생담당관은 그러나 이번 가금류 폐사는 H5N1형 AI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알렉세이 판텔레예프 모스크바주 지사 직 무대행은 인테르팍스 통신과 회견에서 현지 주민 여러 명이 AI 감염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으나 입원자 수는 언급하지 않았다.

H5N1형 AI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지난달 말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1천km 떨어진 크라스노

다르 지역에서 발견됐으나, 모스크바 근교에서 발생한 적은 그동안 한 번도 없었다.

- 모스크바.카이로 AFP.로이터=연합뉴스

## 프랑스

### AI 발생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산 가금판매 성황

프랑스 가금 생산이 지난주에 영국내 AI 발생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같은 시기와 비교하여 약간 상승했다고 프랑스 판매협회 발표했다.

2월 5일~10일 동안 5%에서 7%까지 판매율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 로이터

## 중국

### 중국기업이 시에 유효한 한방약 개발

국가중의약현대화공정기술연구센터 부주임인 조휘 박사는 지난 2월 13일 광명일보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미 AI의 예방과 치료의 약을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해 생산하게 돼 감염이 대규모로 확산되어도 충분히 대응된다”라고 말했다.

조휘 박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주해여주집단 사천광대제약공사는 요 2년간 홍콩대학 의학원 신형전염병중점실험실에서 위탁실험을 했다.

그 결과 근 40년 연구 개발 생산 응용된(동사

의) ‘천방’ 항바이러스 과립’이 H5N1형 AI 바이러스의 체내번식 및 호흡기도 이외로의 확산에 대해 뚜렷한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한다.

이것은 국가의 엄격한 실험에 의해 인증된 약으로 H5N1 바이러스를 억제시키는 보다 저렴하고 안전한 약의 발견인 것이다.

동 집단은 국가에 이 항바이러스 과립이 AI에 대해 효과적이라는 것을 추가 신청함과 동시에 AI 바이러스의 억제에 효과적 성분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 CN


## 필리핀

### 영국산 가금의 수입중단

필리핀 정부는 영국의 AI 발생에 따라 가금 및 그 생산물의 대해 2월 5일 생산분부터 수입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항만에 철저한 검역을 통해 여행자가 영국으로부터 애완조류, 가금, 가금 생산물을 들여오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동남아시아는 영국에서 전체 수입의 7% (64,969수)의 가금을 수입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필리핀은 지난 1월 16일 생산된 일본의 가금 등 생산물에 대해 일시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다. 

- 로이터